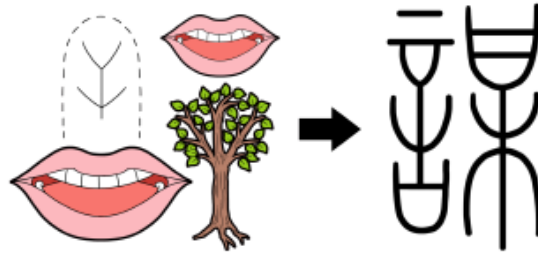


형성문자 ㉠

3(2)
-
151



謀

謀자는 '꾀'나 '계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謀자는 言(말씀 언)자와 某(아무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某자는 매실나무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謀자와 같은 뜻을 가진 글자로는 謨(꾀 모)자도 있다. 謨자는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莫(없을 막)자에 言자를 결합한 것으로 '어두운 말'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말'란 남을 속이기 위한 '꾀'나 '계책'을 뜻한다. 이것으로 보아 본래 '계책'을 뜻했던 글자는 謨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용한자에서는 謀자가 '계책'을 뜻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꾀 모

謀

소전

謀

해서

회의문자 ㉠

3(2)
-
152



貌

貌자는 '모양'이나 '얼굴', '자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貌자는 豸(해태 태)자와 皃(얼굴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皃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람을 그린 頁(머리 혈)자가 변형된 것으로 '얼굴'이나 '모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皃자에 이미 '용모'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豸자를 결합한 貌자는 본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豸자는 고양이과 동물을 그린 것이다. 고양이과는 몸에 얼룩이나 줄무늬가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니 貌자는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의 용모'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모양 모

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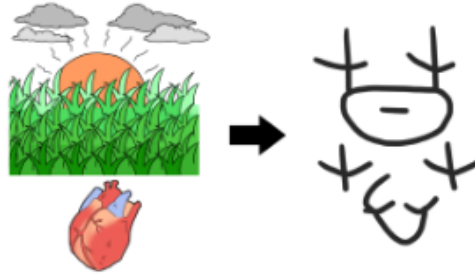
소전

貌

해서

3(2)
-
153

회의문자 ①



慕

그릴 모:

慕자는 '그리워하다'나 '사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慕자는 莫(없을 막)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莫자는 해가 저무는 莫(없을 막) 모습을 그린 것이다. 석양이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적적하면서도 누군가가 그리워지기도 할 것이다. 慕자에 쓰인 莫자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慕자는 이렇게 쓸쓸함이 느껴지는 莫자에 心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모하다'나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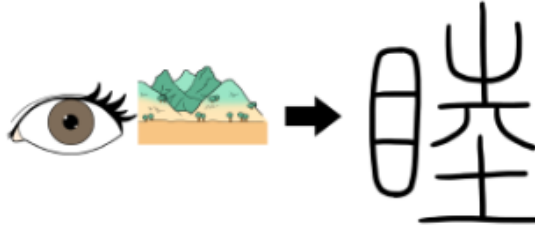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154

형성문자 ①



睦

화목할
목

睦자는 '화목하다'나 '온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睦자는 目(눈 목)자와 睦(언덕 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睦자는 睦과 언덕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록→목'으로의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睦자는 본래 '눈빛이 온화하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온화한 눈빛에서 연상되는 '친하다'나 '도탑다'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가깝다'나 '밀접하다', '온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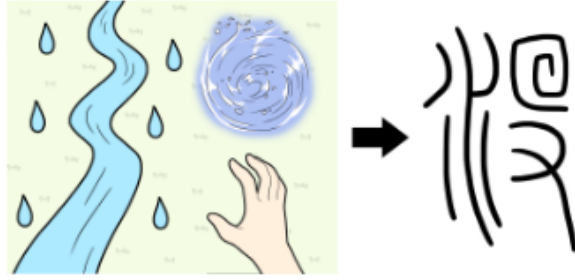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155

회의문자 ①



沒

빠질 물

沒자는 ‘(물에)빠지다’, ‘죽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沒자는 水(물 수)자와 沒(뭉둥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沒자의 소전을 보면 소용돌이와 손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물살 위로 손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沒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며 손을 내밀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물에)빠지다’였다. 하지만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죽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沒자는 우리말보다는 중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이다.

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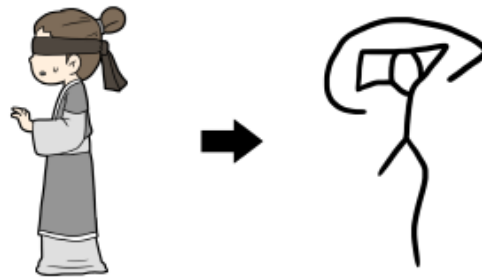
소전

沒

해서

3(2)
-
156

상형문자 ①



蒙

어두울
몽

蒙자는 ‘(사리에)어둡다’나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蒙자는 艸(풀 초)자와 冡(덮어 쓸 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蒙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의 머리에 무언가가 씌어 있는 冡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눈을 가렸다는 뜻이다. 금문에는 人자가 아닌 豕(돼지 시)자와 艸자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어리석음을 상징하던 ‘돼지’를 사용함으로써 “어리석고 우둔하여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다. 참고로 눈을 가렸던 것은 금문에서 冡자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蒙자는 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蒙

갑골문

蒙

금문

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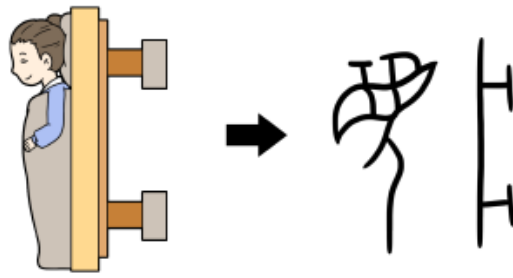
소전

蒙

해서

3(2)
-
157

상형문자 ①



夢

꿈 몽

夢자는 '꿈'이나 '공상', '흐리멍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夢자는 艸(풀 초)자와 目(눈목)자, 冂(덮을 먹)자, 夕(저녁 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夢의 갑골문을 보면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만이 夢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눈과 눈꺼풀은 艸자와 目자로 변하였고 침대는 冂자가 대신하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夕자가 더해지면서 夢자가 '밤'과 관계된 글자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夢

갑골문

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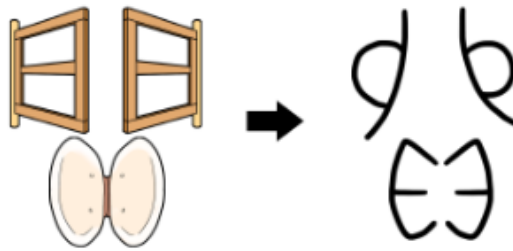
소전

夢

해서

3(2)
-
158

회의문자 ①



貿

무역할
무:

貿자는 '무역하다'나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貿자는 卯(토끼 모)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卯자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무역은 상호 간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즉 재화의 거래가 열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貿자는 재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이다.

貿

금문

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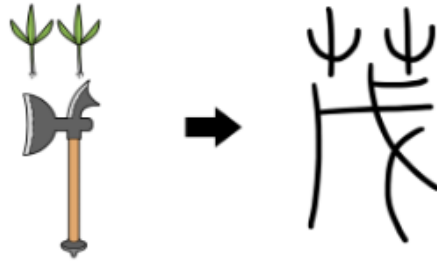
소전

貿

해서

3(2)
-
159

회의문자 ①



茂

무성할
무:

茂자는 '우거지다'나 '무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茂자는 艸(풀 초)자와 戌(천간 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戌자는 초승달 모양의 도끼 창을 그린 것으로 '무성하다'나 '창'이라는 뜻이 있다. 茂자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무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戌자가 艸자와 결합해 '풀이 무성하다'라는 뜻의 茂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창(戌)으로 풀(艸)을 잘라내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戌자가 초승달 모양의 창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채 도구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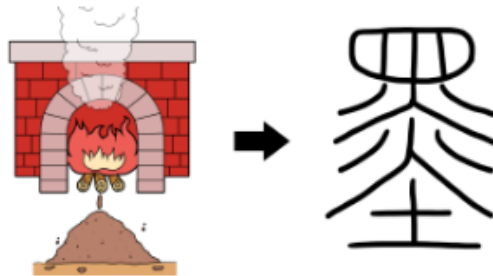
소전

茂

해서

3(2)
-
160

회의문자 ①



墨

먹 묵

墨자는 '먹'이나 '그을음', '먹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墨자는 黑(검을 흑)자와 土(흙 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黑자는 아궁이를 그린 것으로 '검다'라는 뜻이 있다. 먹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모아 아궁이에 개어 압착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를 그린 黑자에 土자를 결합한 墨자는 검게 태운 재를 흙처럼 딱딱하게 굳힌 것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墨

소전

墨

해서